북한 전투기 중국서 추락

조종사 1명 숨져 … 훈련중 이탈 러시아로 망명 시도한듯

북한 국적의 미그-21 전투기가 17일 오후 중국 랴오닝(遼寧)성 푸순(撫順)현 라구(拉古)향에서 추락했다고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이 18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 소식통은 "17일 오후 푸순 상공을 날던 북한 군용기 한대가 사고로 추락했다"며 "사고 비행기에는 조종사 한 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군사정보 사이트 '시루망(西陸網)'도 "17일 오후 4시쯤 북한 전투기 1대가 랴오닝성 푸순)현 라구향 인근에 추락했다"면서 "추락한 전투기는 미그(MIG)-21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상에 현장에서 누리꾼이 찍은 사고현장과 추락한 비행기 사진 2장도 공개했다.

사진에 등장하는 이 비행기 꼬리 부분에 북한 국적을 나타내는 푸른색과 붉은색 원 안에 별이 박힌 로고가 선명하게 표시돼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중국에서 추락한 북한 군용기는 전날 신의주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것이 레이더에 포착됐다"면서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레이더 화면에 미그-21기로 식별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의주 공군기지에는 미그-21과 미그-19, 미그-23이 전개되어 있다.

북한의 군용기 1대가 중국 랴오닝성 푸순에서 17일 오후 추락, 탑승했던 조종사가 사망했다. 사진은 중국 누리꾼이 찍어 인터넷에 올린 사고 군용기. /연합뉴스

소식통은 "추락 현장의 사진에 나타난 동체의 주날개 모양이 삼각형인 것으로 미뤄 미그-21 전투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한 군사소식통은 "통상 비행기가 추락하면 연료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나지만 이 전투기의 형체가 온전했던 것으로 미뤄 연료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비행기가 추락한 푸순은 중국 접경 신의주에서 200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신의주에는 미그기를 훈련기로 사용하는 북한 공군부대가 있으며 이 부대 소속 비행기와 헬기들이 압록강 일대를 비행하며 훈련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돼 왔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신의주 공군부대 소속의 이 비행기가 훈련 도중 대열에서 이탈, 탈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이 검거되면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비행기가 러시아로 탈출, 망명을 시도하려던 것으로 대북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신문사 등 주요 언론들도 17일 오후 중국 당국을 인용, 국적불명의 소형 비행기 1대가 랴오닝성 푸순현 라구향에서 사고로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언론들은 유관 당국은 이 사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을 뿐 비행기의 국적과 탑승자 수, 피해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사전 통보없이 국경을 침범한 북한 비행기를 중국이 격추시키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비행기의 형체가 온전한 점으로 미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단행한 화폐개혁 이후 경제사정이 악화하면서 최근 두만강과 압록강 등 중국 접경에 있는 북한 국경수비대 소속 군인들의 탈북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북 숨겨진 장사정포 곳곳 발견

벌목 등 산림 황폐화로 드러나 … 1만3800여문 추정

북한의 산림이 갈수록 황폐해지면서 그간 보이지 않던 장소에서 장사정포가 포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18일 "북한에서 심한 벌목과 홍수 등으로 민둥산이 늘어나자 엄폐됐던 장사정포가 군사위성과 정찰기 등에 포착되고 있다"면서 "최근에만 수십여문이 새로 관측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에서 가까운 야산 뒤편 동굴 속이나 산림을 엄폐물로 이용해 장사정포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놓았지만 숲이 줄어들자 숨겨 놓았던 장사정포가 정보자산에 새롭게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한·미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수가 매년 늘고 있다"면서 "오는 10월에 발간될 예정인 국방백서에도 증강된 규모를 반영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는 2006년 1만3300문에서 지난해 1만3800여문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지역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는 170mm 자주포 6개 대대와 240mm 방사포 10여개 대대로 추정되고 있다. 사거리 54km의 170mm 자주포는 1분당 2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사거리 60km의 240mm 방사포는 33초동안 22발을 발사할 수 있다.

한·미는 위성과 정찰기, 무인정찰기(UAV), 대포병탐지레이더(AN/TPQ-37) 등으로 장사정포를 관측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이정현 의원 상임위 바꿔가며

광주·전남 예산 따오기 '동분서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광주·전남지역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상임위까지 바꿔가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자 친박(친 박근혜)계로 당내 비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예결위원을 맡아 광주·전남지역 국고 예산을 철저히 챙겨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3년 연속 국회 예결위원을 맡기 위해 한나라당 지도부에 인기 상임위인 문광위에서 기피 상임위인 법사위로 옮기겠다고 자원, 결국 국회 예결위원으로 선정됐으며 계수조정소위에도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내년도 국고 예산 협의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광주·전남지역 예산과 관련된 각 부처 장관에 읍소성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기획재정부 실무진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광주시민의 숙원인 '야구장 건설'사업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국회 국제경기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 의원은 국제경기특위 활동과 예결위 활동을 병행, 야구장 건설 사업과 관련된 국고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18일 "과거 70년대의 고교야구부터 프로야구까지 야구는 광주시민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스포츠"라며 "문화중심도시의 컨셉에 맞게 100년 후에도 광주의 멋이 담겨있는 야구장 건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삼성, LG 등 첨단산업 선도기업 유치 협조를 위해 방문한 광주시 관계자에게 "광주시 차원에서 정·관·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하는 대규모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대기업에 찾아가 투자를 요청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한, 다음 달에는 광주시의 동북아 상품거래소 유치를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여야 정치인은 물론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초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적 시각을 일소하고 '상품거래소는 광주'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 놓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9월 중에 개최하는 '3D 산업 전시회'에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 등이 참여하지 않자, 임원진을 직접 설득, 최종적으로 전시회 참여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이정희 대표, 영산강 사업 현장 방문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9일 승촌보와 죽산보 건설현장과 영산강 하구둑 등 영산강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이 대표는 이날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과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행보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주민들과 현장 관계자,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영산강 탐방에는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 문경식 전남도당 위원장 및 의원단 등 민주노동당 광주·전남 지도부와 당원들이 참석한다. 한편, 민노당 최고위원단은 '4대강 공사 중단', '4대강 국회 검증 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무기한 노숙 농성과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김효석 의원, 수해 현장서 주민간담회

민주당 김효석 의원전남도당위원장(담양·곡성·구례)은 18일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섬진강 유역의 곡성군 옥과면과 입면, 고달면 등을 방문해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로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피해현장 현황을 둘러본 뒤 관계 공무원들에게 피해 농경지 복구지원 및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 뒤 "곡성과 영광을 비롯한 수해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 "5·18 교육관 사업 탄력"

민주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은 18일 "5·18 교육관 2단계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1단계 사업 이후 중단위기에 놓였던 5·18 교육관 건립공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 민주·인권·평화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5·18 교육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대지면적 3465㎡, 연면적 1408㎡ 규모로 사무실, 강의실, 세미나실, 숙박시설 등을 갖춘 시설로 계획됐다.

1단계로 20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지난 7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부분 완공됐으나 2단계 지상 3, 4층 건축 예산이 행정안전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차질이 우려돼 왔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문제사업으로 분류 신청해 관련 예산 30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한 결과 반영됐다.

민주당 광주시당, 대의원대회 준비 만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김동철)은 오는 10월3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와 관련, 시당 대의원대회와 지역 대의원대회를 차질없이 치르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당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와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시당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당은 준비위원회 구성과 준비위원장이 임명되는 대로 논의를 거쳐 시당 대의원대회 일정과 장소, 대의원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대의원대회 준비위는 지역상무위원회에서 구성하며 시당 대의원대회와 마찬가지로 당헌·당규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의원대회를 치르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